

■ 발행일: 2026년 07월 30일 ■ 전화: (033)730-7871 ■ 발행인: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 원주지회장 김택수

중대재해를 잊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고, 임·단협 승리로!

바쁜 생산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름휴가만큼은 가족과 함께 몸과 마음을 충분히 재충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현장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2일 만도지부 평택지회에서 가공설비 수리 작업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안전에는 예외가 없으며,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휴가 기간은 물론 복귀 후에도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원주지회는 이번 평택사업장 중대재해를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회사에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구, 7월 31일 개최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원주공장 전 사업장의 유사 위험요소와 잠재된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조사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부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회사에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7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6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전은 생명이고, 생계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권리입니다. 금속노조 전환 이후 처음 맞는 임단협인 만큼 **정년연장, 고용안정, 신규채용 확대, 실질임금 보전** 등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가 이후 본격화될 교섭에서도 조합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휴가 동안 충분히 쉬고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2026년 임단협 승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십시오.

금속노조 만도지부 원주지회 지회장 김택수

7월 31일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 확정

현장의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겠다... 노동조합 안전활동 강화

조합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재발방지와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선 요구

■ 2026년 7월 31일 12:30 ■ 장소: 원주사업본부 2층 회의실

원주지회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구 안

- 1) 노.사 합동 공장 내 인터록(안전장치) 및 안전장치 설치운영 현황 전수조사
- 2) 위험작업 작업허가제 운영 현황 및 작업허가 절차 공유
- 3)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 매뉴얼 및 대응 매뉴얼 점검.보완
-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2 조 제 2 항)의 활동 범위 확대
- 5) 사업장 전반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 점검(설비.환경.시설.근무형태)
- 6)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조치

■ 중대재해는 예고된 참사... 회사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원주지회는 7월 31일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평택사업본부 중대재해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회사에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개인의 실수가 아닌 안전관리체계와 위험관리 실패가 빚어낸 중대재해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회사가 '생산보다 안전, 실적보다 생명'이라는 원칙을 선언이 아닌 현장의 실천으로 증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 원주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현장 안전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를 원주지회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 현장에서도 언제든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이에 현장의 위험요인과 설비, 작업환경은 물론 기상이변에 따른 고온·고습 작업환경에 대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것이다.

■ 안전은 말이 아닌 실천이다... 노동조합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노동조합은 보여주기식 대책과 일회성 점검으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사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현장의 작은 위험요인 하나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되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